

26호 2013년 12월

다함이 없는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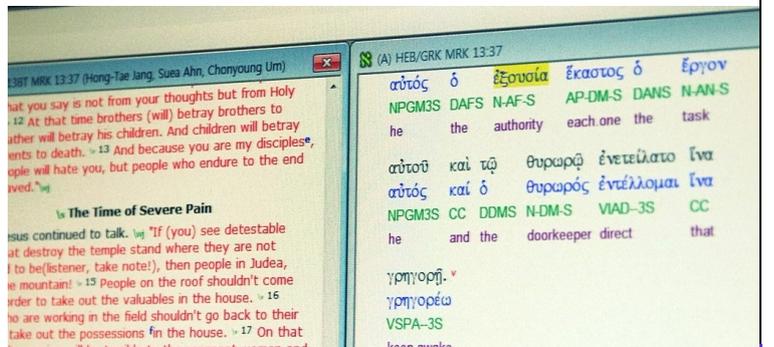
겨울의 참 맛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요즘은 차가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차가움이 무서움으로 다가와 외출하기 전부터 몇 겹의 옷을 차례 차례 껴입습니다. 장갑이며 목도리며 겨울 소품들을 꼭 꼭 챙기고, 외투의 지퍼도 끝까지 잠궤 올리고는 발도 시릴까 염려하며 신발장에서 털 달린 부츠를 꺼내 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뜨끈한 국물을 들이키고 데워진 몸으로 나서는 날은 외투도 대충 껴입고 당당히 밖을 맞이합니다. 그럴 땐 그 차가움은 신선하고 상쾌함으로 느껴져 몸도 가볍고 맘도 덩달아 룰루랄라합니다. 이렇듯 외부의 상황과 환경은 그것을 맞이하는 나의 상태와 너무나 밀접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주 자주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마는 나는 연약하고 건망증 많은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 없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향유 부은 여인에게 나지막히 말씀하셨던 예수의 ‘평안히 가거라’는 말씀이 귓전에 자주 들리는 요즘입니다. 아릴락 1년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짹짹!!!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경 번역 수업과 LPP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여러가지 접근방법과 실용적 측면을 배우는 수업)라는 수업을 끝으로 1년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필드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 때 수업을 청강할 수도 있으니 나머지 1년 과정은 듣지 않고 필드로 가기로 진작에 결정한 사안이었던거든요.

12월의 전반기 2주

성경 번역 수업 후반부에서는 남편과 제가 한 팀으로 마가복음의 일부분(2장)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느 과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과제로 인해 이런 저런 신음과 불평들이 우리를 지배할 만만데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땐 저희팀 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 팀들도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과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 걸어진 그 긴 시간을 지나서인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 속에 그려왔던 일들을 실제처럼 예행 연습해보니 감회가 새로웠던 것일까요?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번역한 것에 대한 코멘트를 주시고 다시 고칠 것을 제안할 때 조차(애써 만들어낸 결과를 다시 해야 하는 충격이 꽤나 클 수 있음에도)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보며 번역을 다듬는 모습들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LPP 수업은 크고 작은 집단(마을, 부족, 도시 등..)을 보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사회, 정치, 문화, 언어, 정서적 상황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프로젝트의 계획을 끝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서 세워보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무지는 우리가 어렵게 세운 계획을 용두사미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쉽게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결과를 머리 속에 그려놓고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작은 실천 하나라도 결과까지 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tool)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13, 14장이 남편과 제가 함께 번역을 해야 할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천천히 들어 온 그림은 '내 목적과 내 그림을 미리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살며 관찰하고 지켜보고 기도하며 겸손히 우리의 몫을 크던 작던 간에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여기까지 우리를 달려 오게 했지만, 그 소원은 어찌면 우리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제 일을 다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우리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편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사역을 전달하기에도 그렇고 기도 동역자들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은 때론 이 분명한 그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의 아릴락 훈련을 받고 나니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생각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네요.



아릴락의 2년, 1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맞이한 2주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들을 집에서 맞이하니 아이들이 신기해하네요.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현관으로 뛰어가서 '까꿍!'하고 소리 질렀더니 함께 깔깔깔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 오전 시간은 나름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짝짝하게 남아있던 일들을 하나씩 할 때는 기쁨이라는 친구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밀려 옵니다.

두 손을 모아 함께 하며

1. 1년 동안의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2. 예수님의 마음과 손을 닮을 수 있기를
3. 1월 한달 동안 갖은 이동으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차분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4. 사역지인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준비해 가도록(의사소통, 비자, 파송예배 등등)
5. 파송 교회와 동역하는 교회 및 단체, 개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있도록
6. 동역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이 잘 연결되어지기를
7. 자녀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부모가 되기를
8. 양가 가족들이 기쁨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아이들이 말레이시아를 빨리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강한 열망일까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의 나약함일까요?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겪을 수 있는 작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부모인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약하게 자라면 어찌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없으면 '천수해리요'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주려고 애쓰다 보면 꼭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해리요를 보며 느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키우시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잘 세워질 때 아마 천수해리요 학교도 건강하게 잘 운영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원 안내

외환은행
303-04-00019-349
예금주) 한국 해외 선교회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저희 가정의 가상 계좌
번호입니다. 후원을 처음 하실 때에는 송금 전
또는 후에, 성경번역 선교회 사무실로 전화하
셔서 재정 담당자와 통화를 해주세요.
재정 담당자 070-8670-6360
홈페이지 / <http://gbt.or.kr>

연락처

인터넷 전화 070-8265-7357
이동 전화 010-4765-7357 (엄)
010-6204-7334 (안)

전자 우편

chonsue@naver.com
sueahn@naver.com

페이스 북

<http://www.facebook.com/suea.ahn>